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4)서광초등학교

“어려운 동작일수록 더 재미있어요”

비대면 요가 체험 교육
어려운 동작도 ‘척척’
40여분 수업 내내 ‘깔깔’
“몸 부드러워진 것 같아”



서광초등교 어린이들이 영상을 보며 요가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됐고 마스크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코로나 확산 여파는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급운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대부분의 수업이 실내에서만 이뤄지며 한창 뛰어놀며 클 아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가 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속에 가지 않고서도 영상을 통해 제주의 자연을 느끼고 요가를 통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2021 한라산 숲 학교 프로그램’이 서광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숲학교 프로그램은 체육관에서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채 진행됐다.

요가 강사 서윤희씨가 직접 숲 속

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자세를 선보인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자세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준비운동을 끝낸 학생들은 요가 매트 위에서 강사의 움직임을 따라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까지 잘 따라하며 유연성을 뽐냈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가 직접 도와주기도 했다.

40여분간 진행된 요가수업을 완주하느라 힘들었음에도 아이들의 열

굴엔 피곤함보단 행복한 모습이 가득했다.

수업이 끝난 뒤 기분이 어땠냐는 선생님들의 질문에 학생들은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박고건(2학년)군은 “어려운 동작에 도전했지만 뻐근해진 몸이 풀리며 부드러워진 것 같다”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느낌이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수현(31) 2학년 담임교사는 “코

로나 때문에 놀이도 못하고 교실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는 바람에 에너지를 발산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많아져 고민하던 찰나에 요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이어 “마스크를 쓰고 요가 동작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학생들의 노력이 칭찬하고 싶다. 상대적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이 강사교육기회가 적은데,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사망자 3명·수형자 1명 등 1011명 4·3희생자·유족 최종 심의 받는다

도 “4·3중앙위원회 최종 심의·결정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 4·3희생자와 유족 1011명에 대한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29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실무위는 올 상반기 접수한 제7차 4·3희생자와 유족 신고자를 대상으

로 사실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심의 결과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사실 확인이 된 1011명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희생자엔 사망자 3명과 수형자 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유족은 직계 존비속 등 1007명이 포함됐다.

실무위는 이날 제주4·3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실무위는 유족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함께 4·3중앙위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4·3유적지 인권·평화 학습장으로…”

도, 보존·관리·전승 계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역사 현장으로 전승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4·3특별법에 4·3유적지 보존·관리 조항이 반영돼 국비 확보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9년 수립한 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4·3유적지 30곳 정비에 나선다.

유적지 정비에는 올해 10억원, 내년 14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또 제주도는 4·3유적지 관리에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킬 예정이

다. 4·3유적지 지역의 이장과 통장 등 226명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주민 주도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유적지에 대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도 추진하는 한편 4·3유적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크투어 연계 등 4·3유적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윤진남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 국장은 “4·3역사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4·3유적지가 인권·평화의 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핑크몰리 앞에서 제주관광 기념 ‘찰칵’ 29일 서귀포시 휴애리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핑크몰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개천절 연휴 관광객 15만명 온다

11만명 입도 작년보다 29% 늘어 관광협회 “거리두기 완화 효과”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개천절 연휴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기간 중 제주 예상 입도객은 14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일별로는 금요일인 1일 3만9000여명, 2일 4만3000여명, 3일 3만4000여명, 4일 3만3000여

명 등이다. 교통별 입도관광객은 항공 14만 1000여명, 선박 8000여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시기 11만5600여명과 비교하면 28.9% 가량 증가한 수치다.

도관광협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시 일평균 2만4000여명에서 3단계 완화후에는 3만4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천절 연휴 역시 가족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골프 등 4-8인 이내 소그룹 관광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면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올해 수능시험장 확대 총 20곳 설치… 6994명 응시

제주지역에서는 6994명의 수험생이 20개 시험장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수능 D-50을 맞아 시험장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11월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16개 일반 시험장(95(제주)지구 12곳, 96(서귀포)지구 4곳), 2개 별도 시험장, 2개 병원 시험장 등 총 2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일반 시험장 학교는 95(제주)지구 남녕고, 제주제일고, 오현고, 대기고, 제주고, 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사대부고, 제주여성, 제주중앙고, 영주고와 96(서귀포)지구 서귀포고, 남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다. 별도 시험

장은 신제주의국문화학습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설치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시험실당 인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명으로 편성된 가운데 제주(95)지구 수능 지원자 인원이 증가하면서 제주 중앙고와 영주고가 올해 신규 수능 시험장 학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일반 시험실은 22개 증가했으며, 수능 시험감독관 등 시험종사 요원도 180명 가량 증원된다.

점심시간에는 수험생 책상에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되며, 수험생들은 가급적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50일이 건강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은 건강을 각별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온다. LX-ESG!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관

스마트한 세상의 큰 밑그림을 그립니다

LX공사는 국민 삶을 바꿀 혁신 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지적속량 국토의 기초를 세우다
지적재조사 스마트국토 미래를 열다
국토공간정보 4차 산업혁명을 이끌다
교육·연구 국가발전의 기여하다
해외 세계를 향해 나아가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